

이탈리아 파빌리온을 통해 보는 한국사회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포럼 '외로움의 지형학' 18일 실시 동곡뮤지엄서 오후 2시부터 학술·예술·현실적 관점서 토론

광주비엔날레 외부 전시인 파빌리온을 통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의미있는 포럼이 개최된다.

9일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재)보문복지재단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 동곡뮤지엄에서 공동 학술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와 연계해 개최되며 주목받고 있다.

'외로움의 지형학'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과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앞서 지난해 9월7일 동곡뮤지엄에서 개막해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파빌리온 전시다.

전시를 기획한 이탈리아의 신진 작가 레베카 모치아는 현대사회 외로움의 정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색 해온 예술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영국·미국·일본·한국 등을 방문해 진행한 연구와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 상태를 영상과 사진, 아카이브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였다.

10개의 영상채널 작품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그의 실험성과 미래지향적인 예술의 신선한 감각이 돋보인다.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현대 미술에서는 도시화로 심화된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 중심 문화로 인해 청년층이 경험하는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정소의 큐레이터가 기획했으며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김효진 WISH BUILDER 대표, 백희정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책임자,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최은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전시 주제와 연계해 도시화, 경쟁 중심 문화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외로움의 양상 가운데 특히 청년층이 경험하는 문제에 주목할 예정이다. 청년 당사자가 실제 겪고 있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4개국 국제 리서치 결과를 설치미술로 선보인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 참여작가 레베카 모치아가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참여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이 열리고 있는 동곡뮤지엄 전시장 전경. (재)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제공

또 한국 청년 외로움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과 심리학적 개입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해 '종합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시와 연계를 통해 예술과 학문이 결합된 토론 형식은 참석자들에게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출판물로 발행돼 넓은 범위에서 외로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소의 예술감독은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문가 및 청중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18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등록 및 문의는 동곡미술관(062-945-0070)으로 하면 된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광주과학관, 신년 청림 서한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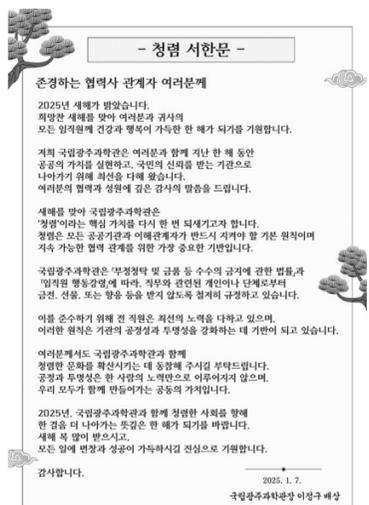
강력한 청림의지 표명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청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림 서한문(사진)'을 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전직원에게는 상호존중과 청림을 키워드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일하는 것이 신나는 조직문화 △정령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신년 서한문에는 핵심가치로 '청림'을 강조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을 기관에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안내해 청렴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 관장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청림 나눔 사물함' 제도는 지난해 2



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며 청림문화 전직원 확대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기관 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박찬기자

알라딘 '한국문학의 얼굴들'에 소설가 김애란·시인 이병률 선정

독자 15만5253명 참여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진행한 독자들이 뽑은 '2024 한국문학의 얼굴들'에 김애란 소설가와 이병률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9일 알라딘에 따르면 한국 소설 분야에선 김애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4.8%의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고 시 분야에선 이병률의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출간된 책들을 대상으로 한 해를 대표하는 소설과 시집을 선정하기 위

해 마련됐다. 투표에는 독자 15만5253명이 참여했다.

소설 분야 1위를 차지한 김 작가는 "누군가와 여름에 만나 겨울에 헤어지며 봄에 또 보자고 약속하는 기분이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싶어진다"며 "올 한 해 한국문학을 아껴주시는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 분야 1위를 거머쥔 이 작가는 "오늘 아침 팡팡 언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 안으로 물통을 넣어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을 봤다"며 "저 역시 물통 가득 넘치게 받은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익혀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찬기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해방 이후 광주이야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단행본 출간 주민센터·문화기관 등에 무료 배포 "역사·장소성 담은 소중한 문화자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 지역의 유·무형 역사문화자원 관련 조사·연구사업 일환으로 '해방 이후 광주이야기'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해방 이후 광주이야기'에는 해방 전후 신문 기사, 일제 말기의 각종 자료, 미군정 자료, 정부 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 관련 증언 및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민족 분단 이후 광주에서 일어난 귀중한 정보가 담겼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시기 광주를 중심으로 극장 이야기와 행정·업무의 중심지라 불리는 상무지구의 탄생 이야기 등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해방 이후 여러 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만날 수 있다.

노경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길 바라며 지속적인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이후 광주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정신의 근간에 다시 한번 공감하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방 이후 광주이야기'는 제주4·3평화재단,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등과 기증식을 갖고 시민과 국공립도서관, 각 구청 주민센터, 문화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리집(gjstory.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광주 역사문화자원 100', '광주 역사문화자원 웹툰100', '광주읍성 이야기', '역사문화지도 8종' 외 다양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